



제68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7월 13일)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

이용진, 302호 금속공예실 18:00~18:30

불교에서 향은 부처님의 사자使者로 불교의례의 시작에는 향을 피우는 소향을 먼저 합니다. 소향은 권청勸請, 법계에 향기가 두루 퍼짐, 도량장엄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침향枕香과 전단향梅檀香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데, 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불교경전에는 소향의 목적과 향의 평가뿐만 아니라 소향에 사용하는 향로의 재질과 기형에 관한 언급도 있습니다. 경전에 언급된 향로의 재질은 크게 금속과 자기로 나눌 수 있으며, 금속은 금·은·동 등의 재질로 제작하였습니다. 자기는 중국 당나라 때 불교경전의 한역 과정에서 당시에 유행한 재질을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교경전에 언급된 향로의 기형은 단이나 상 위에 놓고 사용하는 거향로居香爐와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병향로柄香爐가 있고, 고려시대에는 걸어서 사용하는 현향로懸香爐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편성이란 측면에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교향로는 거향로인 향완香垸입니다. 향완은 원형받침과 나팔형 간주, 전이 달린 원통형 몸체로 구성되며, 통일신라시대의 거향로를 바탕으로 내재적 발전을 거쳐 11세기 중반 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고려시대 향완 중 은입사로 문양을 표현한 것을 청동은입사향완이라 하며, 1164년에 만든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백월암명 청동은입사향완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청동은입사향완의 문양은 단계적 발전을 거쳐 13세기에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여의두문 원권 안에 범자를 새기고, 범자 사이에 연화당초문을 은입사하면 문양이 완성됩니다. 13세기에 완성된 청동은입사향완의 문양은 14세기 지정연간에 제작된 청동은입사향완에도 적용됩니다.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의 입사 방식은 문양을 새기는 곳만 파고 은실을 끼워 넣은 끼움입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끼움입사방식은 삼국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사용된 은입사 방법입니다. 은입사로써 연판문, 범자, 용과 봉황, 당초문, 뇌문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청동은입사향의 문양 중 몸체의 범자梵字 네 글자가 주를 이루며, 옴마니파드메훴 계열과 아옴호리히 훴, 찬탄어구로 구성됩니다.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은 동시기 동아시아에서 사용한 불교향로 중 가장 불교적인 문양의 향로였을 뿐만 아니라 색의 대비를 통해 문양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불교향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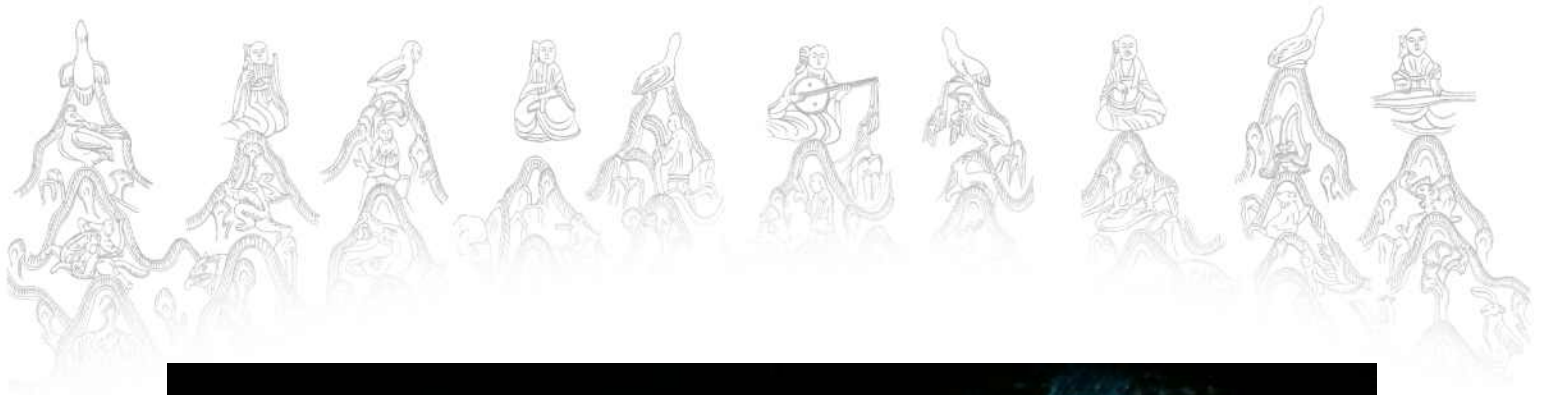


그림 1. 끼움입사와 쪼음입사



그림 2. 함평궁주방명 청동은입사향완과 청곡사명 청동은입사향완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10)

정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마야와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스테카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대신, 전쟁과 인신공양의 잔혹한 이미지와 스페인 정복자를 자신의 신으로 오해한 멸망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견고한 통치체제 위에서 번영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공물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예술과 지식의 발전도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아스테카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 연구와 발굴 조사 결과, 아스테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였던 유럽 정복자의 과장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잔혹함으로 치부하였던 그들의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스테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은 그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과 세상이 탄생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여겼으며, 인간 역시 이러한 신들 덕분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아스테카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 뒤 자연, 경제, 전쟁, 정치, 예술, 지식, 제의 순으로 아스테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고 과장과 왜곡으로 가려졌던 아스테카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지하세계의 신
믹틀란테쿠틀리



그림2. 비와 풍요의 신
찰치우틀리쿠에 화로



그림3. 비의 신
틀랄록을 그린 항아리



그림4. 바람의 신
에에카틀

제68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7월 13일)

인류 최초의 발명품 토기

양성혁, 102호 신석기실 19:00~19:30

토기는 흙을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토기의 재료인 흙은 물에 닿으면 쉽게 흐트러지지만, 불에 구워지면 이전과는 달리 단단해지고 불에 넣어도 타서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물에 녹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흙과 물과 불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인류 최초의 발명품이 바로 토기입니다. 토기의 발명은 인간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토기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를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토기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마지막 빙하기 중 가장 추웠던 약 1만 8천 년 전 무렵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식량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 식량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늘 허기졌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전까지는 먹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독성을 갖고 있어 생으로 먹기 어려웠습니다. 이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불에 달아도 타지 않고 물에도 녹지 않는 토기를 이용하면 식물의 독성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사냥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을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생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식생활의 안정은 사람들을 한 곳에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여 빈번한 이동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이탈을 막고 여유 있는 삶의 향유와 새로운 문화 창조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기의 발명은 인류문화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림 1.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
신석기시대, 제주 고산리 출토



그림 2. 빗살무늬토기
신석기시대, 서울 암사동 출토

제68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7월 13일)

처리 전 상태를 통해 본 보존과학의 손길과 제작방법 연구

황현성, 210호 박병래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 박병래실에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다양한 채색 안료와 장식기법으로 만든 도자기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자기들 가운데 일제 강점기나 근래에 복원하였으나 현재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전시가 불가능했던 도자기들이 최근 다시 복원처리를 하여 새롭게 전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 전시된 도자기 전시품들 가운데에는 박물관에서 전문적으로 보존처리를 거치지 않고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보수업체에서 처리되어 들어온 도자기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과거 상업적 보수처리는 유물 중심의 처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 당장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명적인 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복원부분이 심하게 황변되어 전시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수하던 시기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80년대까지로 금분이나 흑칠 등 황변이 심하게 진행되는 복원재료를 사용한 보수방법으로 현재에는 석고, 나무, 합성수지 등 비교적 황변이 덜한 복원재료와 문화재에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보수방법을 통해 과거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방법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여 보다 더 나은 복원재료와 안전한 복원 방법으로 재탄생시킨 도자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최근 과학적 장비(C.T)를 통해 연적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알게 되면서 조상들의 과학 기술을 엿 볼 수 있어, 문화재 외면의 감상에 더해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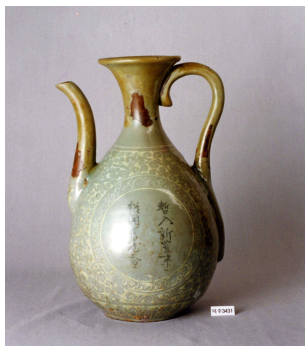


그림1. 목분으로 복원한 상태



그림2. 미확인재료로 복원한 상태



그림3. 옷과 토분으로 복원한 상태